

양날의 포르노그래피*

김 순 원

가천대학교

I.

이 글은 영문학사에 이름을 올린 작품들 가운데 그 외설성 때문에 통렬히 비난받았으나 역설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한 『수도사』(*The Monk*, 1796)를 최근의 포르노그래피 논쟁의 틀 안에서 재조명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이 소설을 포르노그래피로 재단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소설이 세상에 나온 직후에는 비교적 양호했던 서평들이 재판에서 저자 자신이 영국의 입법가임을 당당히 밝힌 후에야 비로소 통렬한 비판으로¹ 역전되었다는 사실 역시 『수도사』에서 문제가 되는 외설성이 곧바로 포르노그래피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포르노그래피라는 장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² 포르

* 이 논문은 2013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과제번호 GCU-2013-R036)

¹ 당대 문화적 맥락에서 이 소설이 어떻게 생산되고 수용되었는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와트(James Watt)의 글 참고.

² 와그너(Peter Wagner)는 포르노그래피를 “기존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용된 도덕이나 사회적 금기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면서 생식 또는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글 또는 그림”으로 명료하게 정의하는(Hunt, *Invention* 25 재인용) 반면, 많은 비평가들은 포르노그래피가 다면적이어서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예컨대 게이머(Michael Gamer)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대두하기 시작한 장르로서 고딕이나

노그라피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어로 성적 노예나 매춘부를 뜻하는 *porne*와 (어떤 것)에 대한 묘사라는 뜻의 *graphos*가 혼합되어 만들어졌다는(Carse 159) 사실에서 포르노그라피란 성적 행위의 노골적인 묘사나 나체 또는 성기의 묘사를 포함하고 있으리라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정성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성행위나 성기 등의 묘사를 담고 있지 않은 『수도사』를 16세기 아레티노(Pietro Aretino)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7-8세기 프랑스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은—예컨대 우리가 싸드 후작(Marquis de Sade) 하면 떠오르는—포르노그라피의 전통 안에 속 밀어 넣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포르노그라피는 무엇인가, 즉 그것이 그리고 있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아니라 포르노그라피는 무엇을 하는가, 즉 그것이 사회 안에서 어떤 파장 및 영향력을 갖는지 따져보고자 한다면 포르노그라피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그라피를 한낱 성적 판타지에 지나지 않다고 보면서 불쾌감을 야기하는 정도의 그 사회적 영향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다른 사람들은 다수의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포르노그라피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타자화하고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이라는 가부장적 구조의 영속화에 기여한다고 믿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포르노그라피의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는 윌리엄즈(Linda Williams)가 말하였듯, 포르노그라피란 “한 때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났던 넓은 범위의 성 정체성들을 재현하는 수단”(Fallas 95, 재인용)이 된다고 주장한다.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이 그런 것처럼 포르노그라피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 때, 『수도승』을 넓은 의미의 포르노그라피 범위 안에서 논의할 근거는 충분해 보인다. 이 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포르노그라피가 여성 억압의 기제라는 주장과 여성 해방의 수단, 나아가 동성애 경향과 같은 ‘다른’ 성 정체성(들)을 지닌 성적 소수자의 자기표현의 수단이라는 상반되는 주장들 사이에 서서, 『수도사』 또한 이러한 주장 모두에 부합될 수 있는 다면적이며 포르노그라피적인 텍스트임을 논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의 의미는 이 소설의 포르노그라피성을 겉으로 드러난 음란한 장면묘사 등에서만 손쉽게 찾았던 기존의 논의로

포르노그라피가 “변화무쌍하며 구성적”(1044)이라고 주장하고, 켄드릭(Walter Kendrick) 역시 포르노그라피를 한 별의 관습으로서가 아니라 “논쟁의 장”(battlefield), 또는 “미치게 만드는 양가성”(maddening ambivalences)으로 정의한다(Gamer 1044, 재인용).

부터 진일보하여, 이 소설이 포르노그래피를 적대시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여성과 여성의 몸을 비천하고 혐오스럽게 그려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정숙한 텍스트에서는 표현되기 힘들었던 다양한 성 정체성들을 은밀하게 재현해냈다는 측면에 바로 이 소설의 숨겨진 포르노그래피성이 있음을 밝혀내는 데 있다.

II.

다음 장에서 『수도사』를 본격적으로 포르노그래피의 틀 안에서 검토하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개략적으로나마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굵직한 논의들을 짚어볼 것이다. 우선 근대의 태동과 관련된 포르노그래피 논의를 간단히 살펴본 후, 본 글의 주 논지와 관련된 여성주의자들의 논의의 핵심 쟁점들을 언급하겠다.

오늘날 와트(Ian Watt)가 『소설의 발생』(*The Rise of Novel*)에서 주장한 바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설이라는 장르의 발생이 시민혁명 및 산업혁명과 함께 형성된 근대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소설이 발생했던 비슷한 시기에 대대적으로 유행했던 포르노그래피와 소설의 연관성도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18세기 전후로 모습을 갖춘 소설이 은밀해야 할 보통 사람들의 사적인 삶을 매우 사실적으로 독자의 시선 앞에 노출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설과 포르노그래피는 필연적으로 친연 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정희원은 18세기 서간체 소설에서 가장 사적인 영역에 대한 “침해”(invasion)가 이루어지는 기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브룩스(Peter Brooks)의 견해에 기초하여 소설이라는 장르가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 성과 육체, 침실과 가정처럼 사적이고 내밀한 것을 공공의 시선으로 노출시킨다고 말하며, 사적 경험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장르로서 소설과 포르노그래피가 장르적 특징을 공유한다고(8-9) 주장한다. 마커스(Steven Marcus) 또한 소설과 포르노그래피 양자 모두 “근대”(the modern world)를 야기한 거대한 사회 과정들—예컨대 도시의 성장, 청자나 관객이 아닌 글자를 해독하는 독자층의 성장, 사회화자들이 개인화(privatization) 과정이라 칭하는, 사적 경험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경험의 발달, 그리고 성(sexuality)을 삶의 나머지 부분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새로운 경향의 대

두-과 밀접하게 얽혀있어서 그 둘의 성장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나아가 마커스는 만일 소설이라는 장르가 프라이버시와 사적 경험이 점점 증대되어 가는 것의 증거이자 그에 대한 반응이라면, 포르노그라피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미친 희화화”(mad parody)라고 말한다(282-83).

이렇게 포르노그라피가 소설이라는 장르와 마찬가지로 근대의 태동기에 융성했을 뿐 아니라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근대를 추동한 주 요인들과 긴밀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은 흔히 음란성만을 떠오르게 하는 포르노그라피에서 뜻밖에도 혁명과 해방의 에너지를 발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헌트(Lynn Hunt)는 과거에도 쪽 있어 왔던 포르노그라피가 문학 또는 시각적 실천, 해석의 한 범주로서 등장한 것은 서구 근대성의 출현과 동시적이거나 또는 그에 따른 부수적 결과라고 말한다. 즉 포르노그라피는 르네상스, 과학혁명, 계몽주의와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근대성의 출현에 있어 중요했던 순간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작가들이나 관화가들은 이와 같은 발달의 저변을 구성했던 이단자, 자유사상가, 그리고 리버틴³ 부류 출신이었으며, (구교의) 경직된 사제 중심적 교권주의, 경찰의 검열, 편협하고 편견으로 가득 찬 관습에 대한 통렬한 계몽주의의 비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Invention* 10-11, 33)는 것이다. 대표적인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디드로(Denis Diderot)가 포르노그라피를 집필하고 그로 인해 투옥까지 됐었다는 사실은 언뜻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포르노그라피의 이 이중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위계적이고 독재적인 봉건 체제를 타파하려는 혁명의 에너지가 귀족계층이나 가톨릭교회와 같은 폐쇄적 구조 안에서 은밀히 자행되어 온 온갖 성적 타락상에 대한 풍자로 터져 나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혁명기의 포르노그라피적 요소를 포함한 수많은 정치적 팸플릿들이 왕이었던 루이 16세보다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뜨(Marie Antoinette)의 몸을 더욱 집요하게 들추어내면서, “공적 영역을 침범한 여성의 극단적 형태”인 왕비를 “법을 어긴 정치인과의 ‘관계’나 ‘친밀함’을 통해서, 또는 국왕, 대신들, 군인들에게 직접 성적 행위를 가함으로써 (국왕이 상징하는) 통치체(the body politic)를 타락시키기 위해 성적 몸을 이용하는” “위험한 짐승, 교활한 거미, 프랑스의 피를 빨아먹는 흡

³ 우리말로 난봉꾼을 뜻하는 리버틴(libertine)은 방탕한 호색한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도덕률 폐기론자나 자유사상가를 지칭하기도 한다. 헌트는 리버티니즘을 인습적 도덕과 종교의 정통주의에 대한 17세기 상류층 남성들의 반란으로 정의한다(*Invention* 36-37).

혈귀"로 그려냈다(Hunt, "Many Bodies" 123, 111, 123)는 점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혁명 담론으로서의 포르노그래피가 유독 여성의 재현에 있어서는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혹은 남성 그들만의 해방을 위해서 여성을 의도적으로 억압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의문을 풀어 줄 단초 역시 헌트에게서 찾을 수 있다. 헌트는 덕성에 대한 공화주의적 이상이 여성들을 가정의 영역으로 내쫓은 후 남은 남성들 간의 우애에 기초한 "동성사회적"(homosocial)인 것으로 본다. 공적 덕성은 남성다움(virility)을 요구했는데, 이는 타락한 남성 귀족은 물론 공적 영역으로 침범해 오는 여성을 격렬하게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앙투아네뜨의 몸은 일종의 삼각형 구도로 기능했고, 남성 공화주의자들은 그녀와 그녀가 상징하는 바들을 거부함으로써 그들 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Many Bodies" 126)고 볼 수 있다. 헌트는 나아가 비록 제이콥(Margaret C. Jacob)과 노버그(Kathryn Norberg)처럼 포르노그래피 문학에서 독립적이고, 단호하며,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여성의 덕성이나 가정성과 같은 새로운 이상들을 비웃는 다수의 여성서술자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장르의 사회적 또는 철학적 전복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입장이 있다고 기록하면서도(*Invention* 38), 포르노그래피에서 그려진 여성들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당당히 드러내는 독립적이며 난봉꾼 기질이 있는 여성은 수많은 여성 희생자들에 비하면 여전히 소수였으며, 궁극적으로 포르노그래피가 추구하는 바는 남성들만의 평등임을 강조한다.

남성들은 남성 독자들을 위해서 성에 관한 글을 썼다. 남성들은 자신들의 성적 흥분을 위해서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 또는 여러 명의 상대와 성적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 읽었다. 이와 같은 엿보기 취미와 사물화의 복잡한 교차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남성간) 우애는 사회적 평등화의 의미에 있어 민주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거의 언제나 남성들을 위한 평등화였다.

Men wrote about sex for other male readers. For their own sexual arousal, men read about women having sex with other women or with multiple partners. The new fraternity created by these complex intersections of voyeurism and objectification may have been democratic

in the sense of social leveling, but in the end it was almost always a leveling for men. (*Invention* 44)

결국 16-7세기에 생산과 소비에 있어 거의 엘리트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포르노그라피가 18세기에 이르러 인쇄술의 발전과 문자해독률 증가에 힘입어 중산층 남성 전반으로 확대 소비되면서 현트의 표현대로 일종의 “포르노그라피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pornography; *Invention* 41)가 이루어졌지만, 이때의 민주화가 남성 소비층을 민주화하는데 멈춰서 사회 구성원 모두를 민주화하는 담론으로 발전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의 담론이면서도 억압의 담론이 되는 양날을 지닌 포르노그라피는 여성주의와 조우해 더욱 열띤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그 한가운데 포르노그라피는 여성혐오에 기초하며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성애화(eroticize)함으로써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영속화한다고 주장한 80년대 중후반의 유명한 맥키닌(Catharine MacKinnon)의 논의가 있다. 이후 포르노그라피 논쟁은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맥키닌과 같은 입장에서 서서 포르노그라피의 검열과 통제를 주장하는 반포르노그라피주의와, 이에 맞서서 검열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 포르노그라피 검열은 외설과 음란이 미치는 해악보다 더 심각한 해악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공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카스(Alisa L. Carse)는 포르노그라피를 둘러싼 논쟁의 진영을 크게는 (포르노그라피) “보호주의자”와 “제한론자”로 나누고, 다시 각각의 진영을 “절대적 보호주의자”와 “조건부 보호주의자”, 그리고 “불쾌감(offense)에 근거한 제한론자”와 “해악(harm)에 근거한 제한론자”로 구분한다(156). 각 진영의 입장을 간략히 설명하는 것이 포르노그라피 논쟁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카스의 설명을 간략히 옮겨보겠다.

“절대적 보호주의자”란 “시민 자유론자”(civil libertarians)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포르노그라피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미국의 헌법 제 1 수정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으며, 어떤 종류의 발언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표현의 자유가 포르노그라피에서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만일 포르노그라피적 요소를 담고 있는 발언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절

대적 보호주의자들에게는 도덕적 독재주의에 다름 아니다.

“조건부 보호주의자”는 제 1 수정조항의 해석을 확장하여 어떤 발언이 유해하다는 조건 하에서는 그에 대한 제한이 적절하다고 본다. 단 이 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예방된 해악이 제한함으로써 야기된 해악보다 더 커야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들은 비록 다수의 사람들이 포르노그래피를 불쾌하거나 저급한 것으로 여긴다는데 동의하면서도 포르노그래피가 성적 판타지의 상대적으로 해가 적은 재현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그것이 더 유해한 성적 행동으로 내몰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카타르시스의 기회, 즉 일종의 건강한 배출구 또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불쾌감에 근거한 제한론자”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법적 제한의 근거로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란한 외설물을 처벌하는 ‘외설(규제)법’(obscenity law)을 든다. 즉 그들은 포르노그래피가 외설의 표준적 특징들을⁴ 공유하는 음란한 형식의 발언이라면 헌법 제 1 수정조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당연히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악에 근거한 제한론자”는 포르노그래피의 문제가 단지 불쾌감을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해악을 야기한다는 입장에서 포르노그래피의 제한을 주장한다. 이들과 조건부 보호주의자와의 공통점은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제한의 근거로 포르노그래피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을 들고 있는 점이며, 반대로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해악에 근거한 제한론자들의 경우 포르노그래피의 해악이 법적 제한을 정당화시킬 만큼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점이다. 특히 그 “해악”이 성적으로 차별적이며 폭력과 강제를 성화(sexualize)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강등과 종속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으로 여긴다(Carse 156-57).

포르노그래피와 그 허용 및 제한을 둘러싼 이와 같은 다양한 입장과 주장들을 문학 작품의 분석에 가져오려 하면서 필자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면서도 또한 엄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점은 포르노그래피가 사회 안에서 남성

⁴ 1973년 미국 대법원은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 24에서 ‘외설’의 법적 정의를 평균 수준의 사람이 지역사회의 기준을 적용해 색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관심에 호소하는, 명백히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그리거나 묘사하는,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결여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라고 정의한 바 있다(Carse 158, 재인용).

에 의한 여성의 폭력적 지배를 유지하고 선전하는데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영향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판단하는 문제였다. 이와 함께, 4번의 각주에서 설명한 바 있는 ‘외설’의 법적 정의도 보다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음란함이나 색정성 등의 수위를 판단하는 평균 수준의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판단의 참조점으로 삼는 지역사회의 기준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많은 여성론자들은 포르노그래피가 서구문화의 저변에 자리한 여성혐오주의와 남성우월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굴종을 재생산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일찍이 론지노(Helen Longino)는 포르노그래피가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성적으로 착취 또는 조작될 수 있는, 한낱 성적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속하고 비천하게 그려진 것”(Carse 159, 재인용)이라 정의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맥키넨과 드워킨(Andrea Dworkin)은 1984년 포르노그래피 금지법 입법 추진 과정에서, 포르노그래피가 여성을 종속적 존재로 재현하기 위해 여성과 여성의 신체를 비인간적으로 다루는 구체적인 장면들을 예시하였다.⁵ 이러한 주장들에 동의하는 자들은 포르노그래피에 그려진 여성 신체에 대한 가학적 재현이 실제 생활로 이어져 강간과 같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이 증가될 것을 우려한다.⁶ 여성에 대한 실제적인 폭력의 증가도 물론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포르

⁵ Pornography shall mean the graphic sexually explicit subordination of women, whether in pictures or in words, that also include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1) Women are presented as sexual objects who enjoy pain or humiliation; or (2) Women are presented as sexual objects who experience sexual pleasure in being raped; or (3) Women are presented as sexual objects tied up or cut up or mutilated or bruised or physically hurt, or as dismembered or truncated or fragmented or severed into body parts; or (4) Women are presented being penetrated by objects or animals; or (5) Women are presented in scenarios of degradation, injury, abasement, torture, shown as filthy or inferior, bleeding, bruised, or hurt in a context that makes these conditions sexual; [or] (6) Women are presented as sexual objects for domination, conquest, violation, exploitation, possession, or use, or through postures or positions of servility or submission or display. (MaGowan 25, 재인용)

⁶ 포르노그래피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하여, 이해완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할 경험적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경험적 증거의 해석을 놓고 논쟁 중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공정한 입장일 것이라 주장한다(256).

노그래피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와 같은 권력의 문제를 성애화하여 재현하는 포르노그래피가 궁극적으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반복재 생산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화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주의와 연대한 이와 같은 반포르노그래피주의는 오늘날까지도 그 입지가 확고하여서, 만일 포르노그래피가 반드시 또는 전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곧 여성주의자가 아닌 것이 되는 풍토가 조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펠러스는 여성주의와 포르노그래피가 “양자택일”의 상황 (“either/or” situation)에 놓여서 여성주의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포르노그래피를 좋아하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말한다(Fallas 96). 실제로 맥키넨은 포르노그래피를 반대하기보다 역으로 전유함으로써 여성의 해방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으며 포르노그래피의 검열에 반대하는 FACT(Feminist Anti-Censorship Task Force)와 같은 그룹의 주장을 여성주의의 죽음과 동일시하기(Diprose 1-2)도 하였다.

그러나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여성주의적 반포르노주의에 대한 반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디프로즈(Rosalyn Diprose)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sexuality)이 근본적으로 여성혐오적이라고 믿고, 모든 성적 관계를 권력의 불균형 문제로 치환하면서 지배와 종속의 역학 관계로부터 (여성의) 몸의 온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고 평등한 쌍방 간의 교환적 관계를 모색하는 맥키넨 류의 입장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지적한다. 우선 그들의 입장은 기실 정신적 사랑을 육체적 욕망 위에 놓았던 플라톤 이후 반-몸적(anti-body) 특징을 견지해온 서구 철학의 인식론, 그리고 (남성을 인간의 대표로 보는) 18세기 계몽주의 및 평등주의적 정치 철학의 토대 위에 구축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반-여성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몸의 온전성과 자율성을 강조할 때 자연스럽게 개인과 개인 간에 장벽이 세워지는데, 이는 곧 ‘너그러움’을 결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2-3).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와 메를로 뵙띠(Maurice Merleau-Ponty)의 개념에 입각하여 소위 “성애의 너그러움”(erotic generosity)을 내세우는 디프로즈의 주장은 이 글의 논지에서 비껴나므로 여기서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맥키넨 류의 주장의 본질주의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논리가 역설적이게도 여성차별적 가치관과 맞닿아 있음을 밝힌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하

했다. 하주영 역시 맥키닌의 반포르노주의를 금욕주의적 페미니즘이라 부르며 극복되어야 할 경직된 보수주의로 평가하고, 성적 억압의 폐해나 해악에 분노하는 금욕주의적 페미니즘을 넘어서서 (여성의) “성적 열정과 쾌락을 긍정하는 미래지향적 페미니즘”을 요구한다(139). 즉 하주영은 포르노그래피를 여성의 억압과 연결시켜 보는 시각이 성적 위계와 차별이 엄연한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관점들 중의 하나로 인정하면서도, 성적 욕망의 표현물인 포르노그래피가 성적 불평등의 측면으로 모두 설명될 수 있다는 논리에는 반대한다. 오히려 성적 위계와 고정된 성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포르노그래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포르노그래피에서 성적 금기와 통제, 억압에 대해 보다 선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135). 펠러스 역시 포르노그래피가 “가부장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구축된 이상들 밖에 놓인 주변화된 성 정체성(들)과 성차의 표현들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킨다”(195-56)고 주장한다.

맥키닌의 경직된 이항대립구도를 극복하고, (여성의) 몸에 좀 더 주목하면서, 나아가 정상적 또는 이상적이라고 구성된 범주로부터 추방된 주변화된 차이들로 관심을 옮기는 이와 같은 입장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외설’의 법적 정의가 지니는 문제의 지점을 정확히 지적해 준다. 즉 외설의 법적 정의가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지역사회의 합의된 가치체계 안에서 음란이나 색정을 결정하는 평균적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이 예컨대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형성된 다수의 관점을 의미한다면,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검열은 다수에 의한 소수의 통제, 즉 가부장제라는 지배질서를 교란시키는 소위 비정상적인 몇몇 희생양을 처벌함으로써 지배질서를 재고착화하는 과정에 다름 아닐 수 있으며, 결국 그 안에 무한한 분지들을 지닌 ‘여성’을 뭉뚱그려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각기 다른 양태로 존재하는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으로 귀결될 수 있다.

카푸티(Mary Caputi)는 외설에 대한 기존의 법적 정의와 판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외설을 정의한다. 카푸티에 따르면, “외설은 위반과 금기를 통합하고, 경계를 어기고, 무의식적으로 합의된 한계를 뛰어 넘는다”(5). 외설에 대한 이러한 정의의 참신함은 계몽주의와 근대 산업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연속과 통합이 아닌 단절과 파편에, 디오니소스적인 쾌락 원칙 대신 현실 원칙에 얽매어 신경증을 앓고 있는 현대 서구문명의 해독제로서 외설의 의미를 재해석하는데 있다.

대체로 성적인 것, 대소변과 같은 것, 그리고 죽음을 다루는 외설은 쾌락을 향한 우리의 즉각적인 충동을 더 심오하고 복잡한 욕망과 결합시켜. . . 사회적으로 강요된 경계들을 우회하고 심령의 죽음을 깨닫게 한다. 한 문화에서 외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그 문화의 한계를 문제 삼기 때문이며, 또한 질서 체계를 위반하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그리고 원초적으로 우리 내부에 있으나 필연적으로 잡혀지 않는 무언가와 접촉하려는 우리의 충동의 실체를 파헤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외설적 표현을 통해 현실과 즉각적이며 “몸적인” 관계를 들춰내고 거둬 발견한다.

Largely sexual, scatological, and eschatological, obscenity combines our immediate impulse for pleasure with a deeper, more complicated desire. . . to bypass our socially imposed boundaries and apprehend a psychic death. Obscenity is essential to culture because it calls into question the limits of that culture, unmasking our impulse to transgress, even deny, the orderly realm and to be in contact with something both primally within us and necessarily beyond our reach. In obscene expression, we both uncover and rediscover an unmediated, “bodily” relationship to reality. (5)

근본적으로 여성주의자인 카푸티에게 ‘외설성’(the obscene)은 곧 ‘여성성’(the feminine)이 된다. 외설성이 경계와 질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처럼, “통제의 상실, 경계로부터의 후퇴를 주문(呪文)하는”(27) 여성성 역시 문화의 조직화 영향에 저항하면서 “조직화되지 않은” 채(inchoate) 마치 “대양과 같이”(oceanic) “확산되어(diffused) 존재한다”(39). 카푸티는 포르노그래피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롭게도 포르노그래피의 임무가 외설적인 여성성을 봉쇄하고 그 위험성을 견제하며 그 원초적 특성이 부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동시에 바로 그렇게 때문에 충분히 외설적이지 않아서 못마땅하다고 언급한다(27).

지금까지 정리해 본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여러 논의들은 포르노그래피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힘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지 않은 채 긴장감을 유지하고 서있다는 인상을 남긴다. 맥키년처럼 포르노그래피를 여성억압의 담론으로 규정하고 검열과 통제를 통해 여성에 대한 실제적인 폭력의 한 원인을 봉쇄하려는 움직임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 반면 계급사회, 경직된 관습 및 교권주의를 타파하려 했던 포르노그래피의 태생적 혁명성을

더욱 발전시켜, 본질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편협한 여성주의를 넘어 보다 진실보한 여성의 성적 주체성 확립을 꾀하며, 동시에 궁극적으로 여성도 그 하나일 뿐인 사회의 무수한 소수그룹들의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포르노그래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여전히 타당해 보인다. 헌트는 “포르노그래피가 항상 의도적으로 차이들을 만들면서 경계를 위반했다”고 지적한다(*Invention 45*). 포르노그래피는 어찌된 경계를 세우고 차이들을 위계화하며 궁극적으로 소수를 배제하는 지배담론을 상쇄한다는 측면에서 애초에 18세기 소설이 그랬었던 것처럼 일종의 “대항장르”(Hunt, *Invention 36*)가 될 수 있어 보인다.

III.

『수도사』를 포르노그래피로 읽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물론 다음의 장면일 것이다.

그녀의 방에 딸린 작은 사실이 보였다. 그녀는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었다. 긴 머리채는 이미 묶어 올려 있었다. 호색적인 수도사가 그녀 신체의 관능적인 윤곽과 찬란할만한 균형을 충분히 관람할 기회가 왔다. 그녀는 마지막 옷을 벗어던지곤 그녀를 위해 마련된 욕조로 다가가 한 발을 물속에 넣었다. 물이 차가와 다시 발을 뺐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타고난 수줍음으로 그녀의 신체의 매력적인 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메디치의 비너스 상의 자태로 욕조의 가장자리에서 머뭇거렸다. 이 때, 길들여진 흥방울새 한 마리가 그녀에게 날아와 그녀의 젖가슴 사이에 포근히 자리를 잡고는 장난치듯 깨물었다. 안토니아는 미소 지으며 새를 흔들며 떨쳐 보려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안토니아는 팔을 들어 유쾌한 은신처로부터 그 새를 내몰았다. 암브로시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욕망은 달아올라 거의 광란의 상태가 되었다.

“항복이야!” 그는 거울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며 외쳤다. “마틸다, 너를 따를게. 날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The scene was a small closet belonging to her apartment. She was undressing to bathe herself. The long tresses of her hair were already bound up. The amorous Monk had full opportunity to observe the

voluptuous contours and admirable symmetry of her person. She threw off her last garment, and advancing to the Bath prepared for her, She put her foot into the water. It struck cold, and She drew it back again. Though unconscious of being observed, an in-bred sense of modesty induced her to veil her charms; and She stood hesitating upon the brink, in the attitude of the Venus de Medicis. At this moment a tame Linnet flew towards her, nestled between her breasts, and nibbled them in wanton play. The smiling Antonia strove in vain to shake off the Bird, and at length raised her hands to drive it from its delightful harbour. Ambrosio could bear no more: His desires were worked up to Phrensy.

“I yield!” He cried, dashing the mirror upon the ground: “Matilda, I follow you! Do with me what you will!” (271)

유명한 이 장면은 암브로시오(Ambrosio)가 마틸다(Matilda)라는 여성의 몸에 물리도록 탐닉한 후 욕망의 새로운 대상이 된 안토니아(Antonia)가 목욕을 준비하는 장면을 마틸다와 함께 마술 거울을 통해 엿보는 것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의 무대가 스페인 마드리드의 어떤 방탕한 귀족의 침실이 아니라 성스러운 카푸친(Capuchin) 수도원이며, 암브로시오는 “성스러운 자”(16), “성모 마리아가 준 선물”(17)이라 불리며 얼마 전 이곳의 수도원장이 된 자라는 사실은 포르노그라피의 전통에서 볼 때 전혀 낯선 상황은 아니다. 수도원 문 앞에 버려져 신부들에 의해 거둬진 아기가 수도원의 가혹하고 편협한 규율에 따라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의 분출을 억압하는 순결의 삶을 강요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폐쇄적 공간에서 이기적 자기우월감에 빠지도록 교육받고 키워져 결국 오만하고 위선적이며 정욕에 탐닉하고 근친상간과 모친살해라는 반인륜적 죄까지 저지르는 괴물이 되었다는 암브로시오의 삶의 궤적은 혁명기의 젊은 지식인이었던 작가 루이스(M. G. Lewis)가 미신에 사로잡히고 몽매하다고 믿은 구교에 대해 얼마나 통탄하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사실 당대에 쏟아져 나왔던

⁷ 멀만(Lisa Naomi Mulman)은 루이스가 구교의 타락상을 통렬히 비판하지만, 사물/이미지의 심층에 존재하는 말쑥이나 법을 따르지 않고 사물/이미지 자체에 감각적 또는 관능적으로 매료되는 구교적 방식에 이끌리는 양가적 태도가 동시에 발견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설이 신교의 이야기와 구교의 이야기로 나누어진다고 말한다(100).

수많은 반교권주의(anti-clericalism) 성향의 포르노그래피 플롯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장면은 포르노그래피가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망의 대상으로 타자화한다는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에 잘 부합한다. 서술자는 안토니아가 마치 스트립쇼걸처럼 조금씩 감질나게 그녀의 몸을 드러내도록 한다. 우선 머리를 묶어 올려 어깨를 드러내고 하나씩 옷을 벗어 드디어 마지막 옷을 벗어버린다. 그러나 여전히 몸의 은밀한 두 곳을 두 손으로 각각 가림으로써 엿보고 있는 암브로시오와 독자들의 애를 태우다가 결국 팔을 들어 완전한 나신을 드러낸다. 두 팔을 든 후 완전히 드러났을 안토니아 몸의 구체적 묘사를 삼감으로써 이 소설은 3류 포르노그래피의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오히려 아직 보지 못한 독자의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그 욕망충족을 지연시킨다. 한편 이미 본 암브로시오의 욕망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안토니아가 양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가리고 있는 하나의 조각상처럼 재현되어 그녀 자신의 주체적 욕망과 전혀 무관하게 암브로시오를 포함한 모든 (남성) 독자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 장면은 암브로시오가 안토니아의 벌거벗은 몸을 소위 “삼각형 구도를 형성하는”(Napier 118) 제 3의 여성과 함께 엿보기 때문에 더욱 미묘하고, 동시에 이들이 몰래 엿보고 있는 것을 독자가 다시 읽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액자서술, 즉 포르노그래피 안에서 포르노그래피성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암브로시오가 음서나 음화를 읽거나 보는 것처럼 마술 거울 속 안토니아를 엿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일깨워진 욕정이 안토니아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과⁸ 살해로 귀결되었다고 해석한다면, 소설의 플롯은 포르노그래피가 실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으로 이어진다는 맥키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⁸ 수녀원 지하묘지에 생매장 당했다가 깨어난 안토니아는 사회와의 끈이 완전히 절연된 채 철저히 암브로시오의 권력 아래 놓이게 된다. 두려우면서도 자신의 몸에서 손을 떼라고 진지한 분노(honest indignation)를 표현하는 안토니아가 저항하면 할수록 그의 욕망은 더욱 타오르고, 마침내 그의 정욕으로 가득 찬 무아지경의 폭력이 안토니아의 여린 사지를 상처 입히고 멍들게 한다(381-84). 암브로시오는 이 지하무덤(Sepulchre)을 “사랑의 방”(Love’s bower; 381)으로 표현하는 등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해석하려 하지만, 이 성적 관계는 많은 반포르노주의자들이 말하는 성애화된 권력관계에 다름 아니며, 5번 각주에서 인용한 여성의 몸에 대한 가학적 재현의 구체적 예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안토니아는 암브로시오에 의해 소설의 2권 4장에서 가상적 벗김을 당한 후 3권 4장에서 실제로 옷 벗겨지고 강간당하고 칼에 찔려 살해당함으로써 희생자로서의 본분을 완성하지만, 이미 소설의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벗김을 당할 안토니아/여성의 운명은 암시되어 있다. 머시아(Murcia)라는 지방에서 이제 막 수도 마드리드에 도착한 안토니아는 아직 시골 풍습에 따라 교회에 들어와서도 얼굴에 두른 두터운 검은 베일을 벗지 않으려 한다. 그러자 일차적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매료당해 얼굴이 보고 싶어진 로렌조(Lorenzo)는 안토니아에게 베일을 벗을 것을 권유한다. 이 장면에서도 서술자는 안토니아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로렌조 또는 독자의 관점에서 서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안토니아의 몸을 그려 낸다. 우선 베일을 완전히 벗기 전에 교회에 온 집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오느라 이미 흐트러진 틈새로 메디치의 비너스 상에 견줄만한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목선이 드러난다. 그 목선은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카로 그늘(가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 가슴은 베일로 꼼꼼하게 가려져 있고, 푸른 허리띠로 동여맨 하얀 드레스 아래로 섬세한 비율의 자그마한 발 하나만이 겨우 “드러나는”(peep out) 것이 허락된다(9). 물론 이는 이 단계에서 로렌조와 독자에게 엿보는(peep) 것이 허락된 것은 오직 발뿐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독자는 로렌조와 함께 두 쪽 뒤에서 베일을 벗은, 아름답다기보다 사람을 홀린다(bewitching)는—누구의 입장에서?—안토니아의 피부, 눈, 속눈썹, 입술, 머리카락, 목, 손과 팔 등을 조목조목 감상하게 된다(11-2). 이 장면에서도 중요한 것은 안토니아 스스로 베일을 벗는 것이 아니라, 동성인 이모, 로렌조, 그리고 그의 친구 크리스토탈(Don Christoval)의 권유를 넘은 강요에 의해, 그것도 직접적으로는 로렌조의 손에 의해 베일이 벗겨진다는 사실이다. 로렌조가 비록 쉽게 타오를(inflammable) 수 있는 불같은 기질(fiery temper)을 지녔을지언정(26) 소설의 주 악당이 되는 암브로시오와 달리 선하고 명예로운 의도를 가지고 안토니아를 사랑하게 되는 남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로렌조조차 안토니아와의 첫 만남 직후 꿈속에서—꿈이란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지만 억압된 욕망을 현시한다고 하지 않은가⁹—자신이 아닌 다른 괴물에 의해 옷이 벗겨진 채 승천하는 안토니아를

⁹ 맥도날드(D. L. Macdonald)는 소설의 서두에 나오는 로렌조의 이 꿈은 자연적인 꿈도, 또는 안토니아의 운명을 예시하는 초자연적인 꿈도 아니며, 단지 리차드슨(Samuel Richardson)의 『클라리사』(Clarissa)에 나오는 러브리스(Lavelace)의 꿈과 상호텍스트적

바라본다는(28) 사실은 여성의 대상화가 악하건 선하건 모든 남성에게 보편적 현상임을 확인한다.

여성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부인당하고 벗겨진 채로 관람과 욕망의 대상이 되는 조각상 또는 그림으로 제시되는 예는 안토니아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보다 복합적인 해석을 요하는 마틸다의 경우에도, 그녀가 로사리오(Rosario)라는 남자 수련수도사가 아니라 사실은 암브로시오를 사모하는 여자였다고 밝혔을 때 그녀의 정체성은 정지된 장면에서 달빛 조명을 받아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가슴이라는 성적 기관으로 대표된다.

두려운 마음으로 수도사의 눈이 단검의 궤도를 쫓았다. 그녀가 수도사 의복을 열어 제치자 가슴이 반쯤 드러났다. 칼끝이 왼쪽 젖가슴에 가 놓였다. 아, 정말 대단한 가슴 아닌가! 그 위로 쏟아져 내리는 달빛은 수도사가 그 눈부시도록 하얀 가슴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의 눈은 탐욕스런 갈망을 담아 아름다운 등근 가슴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감각이 두려움과 유쾌함을 뒤섞어 그의 심장을 채웠다. 격렬한 불길이 사지로 뻗어나가고 피는 혈관에서 끓어올랐다. 수많은 거친 소망들이 그의 상상력을 혼란시켰다.

The Friar's eyes followed with dread the course of the dagger. She had torn open her habit, and her bosom was half exposed. The weapon's point rested upon her left breast: And Oh! that was such a breast! The Moon-beams darting full upon it, enabled the Monk to observe its dazzling whiteness. His eye dwelt with insatiable avidity upon the beautiful Orb. A sensation till then unknown filled his heart with a mixture of anxiety and delight: A raging fire shot through every limb; The blood boiled in his veins, and a thousand wild wishes bewildered his imagination. (65)

반쯤 드러난 마틸다의 가슴을 바라보며 끓어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암브로시오지만, 여성의 벗겨진 몸을 엿보며 “아, 정말 대단한 가슴 아닌가!”라고 말하는 감탄 속에는 암브로시오의 욕망과 시선에 겹쳐진 서술자의 욕망

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문화적인 꿈이라고 한다(158). 이 꿈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그는 고딕소설이 사실주의 소설에서 출발했으며 고딕은 소설을 여성화시켰다는 주장을 편다.

과 시선이 있다. 그리하여 이 장면을 읽고 있는 (남성) 독자들도 자연스레 이 욕망과 시선에 동참하게 된다. 포르노그래피가 글이건 그림으로건 재현의 장르라는 점에서 재현된 내용과 재현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재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관점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장면에서는 여성을 물화시키는 암브로시오의 관점-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견해는¹⁰ 물론 타당하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그리고 이후에 예시될, 여성이 혐오스럽게 재현된 여러 장면에서, 서술자 또는 루이스의 재현의 관점은 현재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암브로시오의 관점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마틸다의 모습을 원본 삼아 그렸건, 혹은 악마가 최후에 밝히듯 그림을 원본 삼아 마틸다라는 여성을 만들어 냈건, 지난 두 해 동안 암브로시오의 방에 걸려 승배의 대상이 되어왔던 성모마리아의 초상화 역시 바라보는 남성의 시선과 욕망의 틀 안에 갇힌 여성성을 잘 예시한다. 이 초상화는 소설의 맥락에서 볼 때 참으로 자연스럽게도 탈육화한 성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우아하게 기울어진 머리, 손위로 부드럽게 놓인 뺨, 장미도 겨룰 수 없는 홍조가 깃든 뺨, 백합도 겨룰 수 없이 하얀 손을 지닌 성적인 몸으로 인해 승배의 대상이 된다. 암브로시오는 그림 속 여성의 곱실거리는 금발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감고 눈처럼 하얀 가슴에 입맞춤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암브로시오는 그림 속 여성이 그림의 틀을 빠져나와 실제로 살아 숨 쉬는 여성이 된다면 “죽을 운명인 인간의 모든 결점들로 얼룩지게”(tainted with all the failings of Mortality) 될 것이고, 곧 혐오감을 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40-1). 나중에 마틸다의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비록 성령에 의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삼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여성을 무성적이고 탈육적인 존재로 만들고자 했던 여타 담론에 비하면 루이스는 이 장면에서 마리아조차 살과 피를 지닌 육화된 성적 여성으로 그려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의 성(sexuality)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를 준다. 그러나 여성이 육체를 허락받는 순간 곧 그 육체가 “죽을 운명인 인간

¹⁰ 예컨대 이해완은 재현에 있어 재현되는 내용(소위 인용부호 안에 포함되는 것)과 재현하는 관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부연 설명하면 여성을 굴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담은 텍스트라 할지라도 여성의 굴욕적 취급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관점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 포르노그래피를 곧바로 여성억압의 기제와 단순 동일시하는 것을 우려한다.

의 모든 결점들”과 동격이 되어 남성에게 혐오감(disgust)을 준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 여성의 몸은 사랑의 행위를 나눈 후 남성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그려진다. 암브로시오는 마틸다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 채 일 주일도 지나지 않아 열정의 무아지경이 지나가면 곧 상대에게서 혐오감을 느낀다(235). 여기에는 암브로시오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다양성(variety)에 대한 갈망, 즉 마틸다 이외의 여러 상대를 원하는 갈망이라든가 혹은 “성교 후의 일시적인 우울증”(Sedgwick, *Coherence* 145)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안토니아의 몸을 드디어 수중에 넣게 되었을 때도 혐오감은 곧 뒤따라 왔으며(384), 따라서 암브로시오는 인도의 모든 부를 준다고 해도 그녀의 몸을 다시 즐기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면서(386), 그녀의 손길이 닿자 마치 뱀에 닿은 것처럼 움츠러든다(387). 특히 죽거나 죽음과 관련된 여성의 몸이 혐오스럽게 그려진 예는 이 소설의 여러 곳에서 손쉽게 발견된다. 안토니아의 어머니 엘비라(Elvira)는 결국 아들로 밝혀지는 암브로시오에 의해 침대로 질질 끌려가 강간당하듯 베개로 얼굴이 덮이고 무릎으로 배와 가슴을 짓눌려 “차갑고 무감각하고 혐오감을 주는 시체”(Corse, cold, senseless and disgusting; 304)로 변해버린다. 성 클레어(St. Clare) 수녀원의 수녀원장은 쫓겨난 폭도에 의해서 진흙과 오물범벅이 된 채 질질 끌려 다니면서 걷어차이고 짓밟히고 돌로 맞아 시신이 되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되는 폭도의 모욕을 받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형체도 없고 역겨운 살덩어리”(a mass of flesh, unsightly, shapeless, and disgusting)로 추하게 변한다(356).¹¹ 아그네스(Agnes)는 태어나자마자 곧 죽어서 부패해 가는 아기의 몸에 편긴 구더기가 자신의 손가락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곤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혐오감을 느끼는(415) 동시에 그러한 그녀 또한 혐오감의 대상이 된다. 즉 죽은 아기의 매장을 거부하고 품에 안고 있는 아그네스의 모습은 아기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마리아를 추하게 역전시킨 것으로, 읽는 독자에게 성스러운

¹¹ 엘비라 살해 장면에서처럼 수녀원장의 살해 장면에서도 성적 뉘앙스가 감지된다. 성난 파괴 시민들에 의한 바스티유 감옥의 파괴를 연상시키는 이 장면은 “광적인 집단적 분노”(popular phrenzy; 356)로 “달아오른 군중”(the incensed Populace; 356)이 수녀원장을 집단 강간하는 인상마저 준다. 여성들의 공간인 수녀원 안으로 침범해 들어와 달아나는 수녀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는 이 군중의 폭력적 욕망은 수녀원을 활활 불태우는 화염(flame, conflagration; 357)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모성에 대한 찬탄이 아니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갖은 고초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하다기보다 혐오스럽게 그려진 이 여성들이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엘비라는 지나치게 신중했고, 수녀원장은 지나치게 잔인했으며, 아그네스 역시 자체력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훨씬 초과하여 처벌하는, 즉 부패하거나 훼손된 이 여성들의 몸을 필요 이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저절로 혐오감이 들게 그려낸 이와 같은 여성 몸의 재현은 “충성스럽게 상술된 가학성에 지나치게 기빠하는”(Spacks 210)¹² 작가의 여성혐오주의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여성/여성의 몸에 대한 혐오주의는 남성과 여성, 정신과 몸을 이항대립의 개념으로 나누고 후자에 대한 전자의 우월성을 당연시하는 남성우월주의의 산물이다. 실제로 서술자/루이스는 여성의 몸을 구체적으로 또 혐오스럽게 그려낸 장면들 이외에도 이미 남성 인물들의 입을 통해 발설되는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소설의 곳곳에 심어 놓았다. 로렌조가 친구 크리스토팔에게 안토니아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을 예로 들어보자. 로렌조가 안토니아는 “젊고 사랑스러우며 부드럽고 분별력이 있으니” 아내로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모든 속성을 갖췄다고 말하자, 크리스토팔은 그녀가 네 아니면 아니요 밖에 한 말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력 있다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에 로렌조는 안토니아가 예라고 말해야 할 때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말했으니 되었다고 말한다(25). 이와 같은 로렌조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여성을 이성적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남성우월주의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암브로시오 또한 마틸다를 “유혹물”(seducing object; 78), “한낱 죽을 운명의 여성”(a mere mortal Woman; 83), 오디세우스를 홀렸던 전설의 “사이렌”(Syren; 224), “첩”(Condubine; 225) 등으로 폄하하고, 자신의 명성이 “어떤 우쭐대며 경박한 여성”(some vain giddy Female; 240)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음을 걱정한다. 사실 암브로시오는 여성에게는 조신함(modesty) 또는 고분고분함을 최고이자 유일한 미덕으로 할당할 당대의 평균적 여성관을 그대로 내면화한 인물이다. 그는 마틸다가 여성임을 밝힌 후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

¹² 스팍스(Patricia Meyer Spacks)는 아그네스가 지하 감옥에서 아기를 낳은 후 겪는 고통, 안토니아가 지하묘지에서 강간당하는 고통에 대한 루이스의 아낌없는 설명은 남성이 가하는 고통의 장면에 내포된 포르노그래피적인 즐거움을 암시한다고 말한다(210).

을 당당히 수행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녀가 여성들 중에서 가장 온순하고 부드럽게 보이고 그를 우월한 존재로 우러러보며 그의 의지에 헌신했던 때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용감하고 남성다운 언행**을 보였다. 이것이 그를 기쁘게 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착오였다. 그녀는 더 이상 던지지 말하지 않았고 대신 명령하였다. 그는 논쟁에서 그녀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키지 않았지만 **그녀의 우월한 판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 순간 **그녀의 놀라운 정신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자의 평가를 되로 얻었는지 모르나 애인의 애정은 말로 잃었다. 그는 로사리오, 그의 다정함, 온유함, 그리고 고분고분함이 아쉬웠다. 그는 마틸다가 여성의 미덕이 아니라 남성의 미덕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했다.

But a few days had past, since She appeared the mildest and softest of her sex, devoted to his will, and looking up to him as to a superior Being. Now She assumed a sort of *courage and manliness in her manners and discourse* but ill calculated to please him. She spoke no longer to insinuate, but command: He found himself unable to cope with her in argument, and was unwillingly obliged to confess *the superiority of her judgment*. Every moment convinced him of the *astounding powers of her mind*: But what She gained in the opinion of the Man, She lost with interest in the affection of the Lover. He regretted Rosario, the fond, the gentle, and submissive: He grieved, that Matilda preferred the virtues of his sex to those of her own. (231-32, 필자 강조)

이어서 암브로시오는 마틸다가 아그네스에 대하여 동정심을 보이지 않은 것을 “잔인하고 여성적이지 않다”(cruel and unfeminine)고 비판하면서, 연민(pity)이란 여성에게는 선천적이고 매우 적합한 감정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연민을 갖는다고 해서 미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민을 갖지 못하는 것이 “통탄할 죄”(a grievous crime; 232)가 된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남성에게 용기, 정신, 판단력을, 여성에게 연민, 온유함, 고분고분함을 나누어 할당하는 것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즉 성적 위계와 차별을 낳는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특성이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성 역할과 이미지를

부여하는 경향은 곧 여성을 천사 아니면 요부로 이원화하는 태도로 귀결된다. 즉 한 여성이 여성에게 할당된 역할과 이미지를 넘어 남성에게 할당된 영역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그녀는 곧 천사에서 요부로 전락한다. 정확히 같은 외형을 지녔지만, 초상화 속의 여성이 남성의 시선의 틀 안에 갇힌 채 천사로 칭송받았던 반면 그림에서 살아나와 남성적 태도를 취하는 마틸다는 “매춘부!”라는 이름으로 땅에 내동댕이쳐지고 건너차인다(244).

여기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수도사』는 사적인 여성의 몸을 독자의 시선에 노골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타자화하고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비속하게 재현하였으며, 또한 여성과 여성의 몸을 필요 이상으로 혐오스럽게 재현함으로써 여성혐오주의가 의심되었다. 즉 『수도사』의 일정 부분은 반포르노주의자들이 말하는 포르노그래피의 정의와 상당히 일치한다.

이 지점에서 마틸다를 새롭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마틸다 역시 포르노그래피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들과 다를 바 없다고, 즉 안토니아가 로렌조와 암브로시오의 의해 조금씩 벗겨졌던 것과 유사하게 남성으로서 입고 있던 두건(cowl)이 벗겨지면서 여성임이 드러나고 결국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킬고어(Maggie Kilgour)가 지적하듯, 마틸다는 남성에 의해 벗겨진다고보다 스스로 벗기를 통제한다(151). 마틸다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그녀에게는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일 뿐이라든가 혹은 남성을 유혹하는 요부로 단정 짓는 암브로시오/서술자의 관점으로 포섭되지 않는 잉여의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은 쿠퍼(L. Andrew Cooper)의 주장처럼 남성 대명사와 여성 대명사를 혼용해서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 속 등장인물과 소설을 읽는 독자 모두에게 생물학적인 몸에 사회적 성차(gender)를 부여하는 것을 돕는 기호의 모호함을 부각시킬 뿐 아니라, 결국 암묵적으로 가부장제와 강제적 이성애에 요구되는 고정된 성차 정체성들(gender-identities)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든다(25-6).

주지하다시피 마틸다는 하나가 아닌 복수의 정체성이 주목되는 인물이다. 마틸다는 자신이 암브로시오를 사모하는 마틸다라는 여성이노라고 밝히기 전까지 로사리오라는 이름의 남성 수련수도사이었다. 앞서 설명하였던 대로, 남성이었던 시절에는 고분고분함을 보였던 그/그녀는 오히려 여성으로 바뀐 후 남성적인 대답함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등장해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당하게 남성적인

여성의 모습을 줄곧 견지하던 그/그녀의 정체성은,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암브로시오를 단죄하고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악마의 말에 따르면, 암브로시오를 유혹하여 타락시킬 의도를 가지고 악마가 만들어낸 대리인으로 잠정 확정된다. 다시 말하면, 이 “모호한 존재”(equivocal being)는¹³ 타고난 성, 즉 생물학적 성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넘나들고, 또한 여성적인 남성이 되거나 혹은 남성적인 여성이 됨으로써 사회적 성차의 경계를 넘나들더니,¹⁴ 마침내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마저 넘나든다.¹⁵ 이렇게 매번 경계를 위반하는 마틸다는 앞에서 인용했던 카푸티가 말하는 ‘외설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안토니아가 아니라 마틸다를 중심으로 『수도사』를 다시 읽으면, 여성을 오로지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여성혐오적이며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당연시하는 포르노그래피를, 위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양한 성 정체성(들)의 차이를 드러내는 ‘외설적인’ 포르노그래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포르노그래피로서의 『수도사』가 당대의 문화적 맥락에서 결코 정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다른’ 성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볼 때, 우선 떠오르는 것은 여성이지만 남성과 다르지 않은 성적 욕망을 과감하게 과시했던 여러 명의 여성들이다. 좋은 집안 출신의 처자였지만 애인을 따라 미련 없이 산적 소굴로 들어 간 마르케리뜨(Marguerite), 수녀의 몸으로 사랑하는 연인인 씨스터나스 가문의 라이몬드(Raymond de Cisternas)와 밀회를 나누다가 임신을 하게 된 귀족 출신의 아그네스, 그리고 역시 귀족 출신의 여성으로 당당히 수녀 신분을 파계하고 린덴베르크

¹³ ‘모호한 존재’는 존슨(Claudia L. Johnson)의 널리 알려진 용어를 빌려 온 것이다. 존슨에 따르면, ‘모호한 존재’란 애초에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가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인데, 프랑스 혁명기 전후로 감성성의 의미가 정치적 맥락에서 새롭게 사용되면서 남성들에 의해 전유된 감성성이 성차 구분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 따라서 여성에겐 오로지 “모호한”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과하게 여성적인”(hyper-feminine) 존재가 되는 두 가지 선택사항만 남았다고 말한다(12). 성, 성차에 있어 경계를 넘나드는 매우 모호한 존재인 마틸다와 한결같이 순진하고 여성적인 안토니아는 당대 여성의 바로 이 두 선택사항을 각각 대표한다고 하겠다.

¹⁴ 마틸다의 성역할 바뀌 하기(transgendering)는 필자의 줄고 “『조플로야』: 여성의 괴물성”에서 캐슬(Terry Castle)의 가장무도회 개념에 따라 분석한 빅토리아(Victoria)의 성역할 바뀌 하기가 그랬던 것처럼 당대의 문화적 맥락에서 전복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4-5).

¹⁵ 마일즈(Robert Miles)는 마틸다가 악마의 하수인일 경우 밀튼(Milton) 식으로 말하자면 “추락한 천사”요 동시에 잠재적 자용동체(hermaphrodite)라고 말한다(52).

(Lindenberg) 남작의 공공연한 첩이 되어 방탕한 삶을 산 베아트리체(Beatrice)가 바로 그러한 여성들이다. 당대 성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평가할 때 그야말로 무결점인 안토니아가 이승에서의 행복을 허락받지 못한 반면 이 흠 있는 세 여성들은 비록 가혹한 처벌의 시기를 겪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로의 행복한 복귀를 허락받는다¹⁶ 점에서 볼 때, 작가가 이 방탕한 여성들을 은밀하게 지지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방탕한 여성들의 사회로의 가시적 복귀는 사실 그녀들이 죄를 초과하는 과도한 벌을 견뎌냄으로써 죄 값을 치렀다거나, 혹은 그녀들의 방탕의 죄가 사실은 죄가 아니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복귀는 그녀들의 뉘우침과 향후 지배적 성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겠다는 약속에 기초한다. 아그네스는 “매우 비난 받을만한”(highly blamable) 자신의 “경솔함”(imprudence)을 인정하고, 애인으로서의 실수가 유죄였다면 아내로서의 행동은 모범적일 것을 약속한다(417).

해방의 에너지를 담지한 그릇, 다양한 성 정체성(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포르노그래피성은 첫 번째로는 방탕했지만 개과천선한 이 여성들에게서가 아니라 사회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사회 안에서 안주하기를 아예 원하지 않는, 반복적으로 경계를 넘어 미끄러져가는 마틸다에게서 찾는 것이 옳다.¹⁷ “나는 당신의 몸을 즐기고 싶어요. 여성이 내 가슴 안에서 지배하고 있어 가장 거친 정념의 먹잇감이 됩니다”(I lust for the enjoyment of your person. The Woman reigns in my bosom, and I am become a prey to the wildest of passions,

¹⁶ 마르케리뜨는 애인이 죽은 후 애인의 동료 산적인 악당 밥티스트(Baptiste)의 수중에 떨어져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수녀원장의 가혹한 처벌의 희생자가 되었던 아그네스 역시 “메디나 가의 아그네스 이야기의 결말”(Conclusion of the History of Agnes de Medina)이라는 장을 통해 1인칭 화자가 되어 스스로 자기 변명을 할 기회를 허락받을 뿐 아니라 애인과의 행복한 결혼을 성취한다. 베아트리체는 린덴베르그와 동거하던 중 그의 동생 오토(Otto)와 사랑에 빠지게 되어 린덴베르그를 살해하지만 역으로 오토에게 배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는 수녀”(Bleeding Nun)라는 혼령이 되어 구원을 떠돈다. 그러나 그녀의 유골 역시 예를 갖추어 가족의 묘지에 안치되는 결말을 허락받는다.

¹⁷ 브루어(William D. Brewer)는 남장을 하고 군대에 들어갔던 스넬(Hannah Snell)이라는 노동계층의 여성과 데온(Chevaliere D'Eon)이라는 기병대 대위이자 외교관이었던 프랑스 스파이를 마틸다의 모델로 보는데, 그는 마틸다가 봉건적인 스페인에서뿐만 아니라 18세기 후반의 사회에서 여성 자율(female autonomy)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금지된 지식에 정통하고 그것을 욕망충족을 위해 사용하는 파우스트(Faust)적인 인물, 또는 메피스토펠레스라고 주장한다(193, 196).

89) 또는 “매 심장 박동과 함께 나는 느껴요. 당신을 즐겨야만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입니다”(I feel with every heart-throb, that I must enjoy you, or die, 89)라는 마틸다의 거침없는 발언은 여성과 육체적 욕망이 동일선상에 놓여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 이러한 마틸다는 기존의 사회의 틀로, 아니 소설의 플롯으로 묶여지지 않는다.¹⁸ 독자가 보는 마틸다의 최후의 모습은 암브로시오와 함께 이단을 심문하는 종교재판(Inquisition)에 회부되어 투옥되었다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자유의 몸이 되었다며 훌훌히 사라져버리는 모습이다. 마틸다는 우아하고 찬란한 드레스를 입고, 겉옷에는 다이아몬드로 머리에는 장미 보관으로 장식을 하는 등 한껏 여성성을 뽐내며 암브로시오 앞에 나타나서는, 위엄 있는 어조로 “나는 이단심문소의 복수를 좌절시켰어요. 나는 자유예요”(I have baffled the Inquisition’s fury. I am free),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과 천사를 구분하는 경계 너머로 감히 도약할 수 있나요?”(Dare you spring without fear over the bounds, which separate Men from Angels?), 또는 “나는 아무 제약 없이 내 감각의 만족을 즐길 것입니다. 모든 열정에 탐닉할 것입니다”(I will enjoy unrestrained the gratification of my senses: Every passion shall be indulged)라고 선언한다(428). 자기와 함께 탈출하자는 제안을 암브로시오가 그 자리에서 수락하지 않자, 마틸다는 “나는 환희와 자유를 향해 질주합니다.”(I speed to joy and liberty)라고 말하고는 사라져 버린다(429-30). 이렇게 마틸다가 홀연히 사라지는 것은 암브로시오로 하여금 악마에게 영혼을 팔도록 유혹하는 마지막 임무 이후 더 이상 그녀가 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엘비라의 몸종이었던 플로라(Flora)마저 고향인 쿠바(Cuba)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는(419) 등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합당한 결말을 부여하는 소설의 플롯은 유독 자유로운 마틸다만큼은 틀로 가두는데 역부족해 보인다. 애초에 모든 경계를 넘나들었던 마틸다의 해방의 에너지는 작가 루이스의 서술의 경계로도 포섭되지 않은 채 천당과 지옥, 옴과 그림, 또는 정상 비정상의 구분을 거부하고 사라진다.

마틸다로 대표되는 ‘다른’ 성 정체성이 소설의 틀을 아예 벗어나 버렸다면, 당

¹⁸ 킬고어는 마틸다, 그리고 라이몬드와 아그네스가 린텐베르그 성을 탈출하기 위해 불러낸 “피 흘리는 수녀”의 경우 그들을 만들어낸 창조자를 벗어나 스스로의 플롯을 갖는다고 말한다(157).

대 문화 안에서 아예 언급될 수 없는(unspeakable) 죄가 되는 동성에 경향을 보이는 성 정체성은 소설의 플롯 안에서 매우 은밀한 배수로를 통해 표출된다. 이점이 포르노그래피로서 『수도사』가 주목되는 두 번째 지점이다. 감히 언급될 수조차 없는 동성애적 성 정체성의 재현은 이 소설의 포르노그래피성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세지윅은 고딕소설의 주요 작가들인 월폴(Horace Walpole), 벡포드(William Beckford), 그리고 루이스에 대해 이들은 각각 “모호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대체로” 동성애의 혐의를 받았다고 말한다(*Between Men* 92). 이 언급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소설에서 가장 성적으로 감정이 고조되고 아름답게 묘사된 곳은 안토니아와 로렌조의 관계도, 안토니아와 암브로시오의 관계도, 암브로시오와 마틸다의 관계도 아닌 암브로시오와 로사리오의 관계를 그리는 부분이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수도원 안에서 가장 후미진 곳, 암브로시오의 영혼을 나른함(languor)에 빠지게 하는 관능적 고요함(voluptuous tranquility)이 편재한 수도원 정원의 동굴 모양의 암자(hermitage)에서 벌어지는 암브로시오와 로사리오의 밀회(50-66)는 그 어떤 남녀의 밀회보다도 관능적이다. 한편 로사리오가 암자의 벽에 새겨진 은둔자의 글을 보고 자신도 것처럼 은둔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자, 암브로시오는 고독한 수련의 시간을 보낸 뒤 형제와 같은 수도사들을 만날 때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바로 (남성) 수도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수도원 제도의 으뜸가는 장점이라고 말한다(54).¹⁹ 물론 루이스는 암브로시오와 로사리오의 관계를 통해 던지지 암시되는 자신의 동성애적 성 정체성이 독자들에게 발각되기 전에 로사리오가 사실은 마틸다라는 여성이었다고 해명함으로써 남성과 남성의 비정상적 동성애 관계를 남성과 여성의 정상적인 이성애 관계로 치환시켜 전개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로사리오가 베일을 벗고 마틸다라는 여성임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암브로시오의 동성애적 욕망에 다시 베일을 입히는 것과 같으며, 지금까지 은밀하게 억압되었던 동성애적 욕망은 이후 걸음로 보기에 정상적인, 아니 과도하게 이성애적인(hyper-heterosexual) 관

¹⁹ 투이트(Clara Tuite)는 프랑스의 계몽주의적 포르노그래피의 전통이 수도원이라는 억압적인 공간을 일종의 포르노토피아(pornotopia)로 삼고 있으며, 암브로시오와 로사리오의 관계처럼 나이가 많은 신부와 젊은 신부의 교습적(pedagogical)이고 少男色적(pedarastic)인 관계를 고전적인 동성애 페러다임이라고 말한다. 즉 암브로시오는 수도원이라는 폐쇄적 공간 안에서 로사리오라는 형태로 안전하게 억압된 성적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11-12번째 문단).

계로 희화화되어 그려진다는 투이트의 지적은(15번째 문단) 매우 적절하다.²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즉 새로이 베일로 가려지고 또는 희화화된 모습으로 치환되지 않아도, 남성적으로 변한 여성 마틸다보다 수줍고 유순했던 남성 로사리오를 못내 아쉬워하는 암브로시오의 속내에서 루이스의 잠재적인 동성애적 경향은 여전히 쉽게 포착된다. 암브로시오가 두려우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그 등장을 지켜본 악마 역시 암브로시오의 동성애적 욕망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놀랍게도 악마는 “남녀를 구분할 수 없게 아름다운 발가벗은 젊은이”(Brewer 199)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암브로시오가 이 미소년과 같은 형상의 악마를 “유쾌함과 경이감”(delight and wonder; 277)을 가지고 바라보며 매료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바라서 놀랍지 않다.

IV.

포르노그래피의 틀로 바라보지 않아도 『수도사』의 양가성은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언급되어 왔다. 프랑스혁명의 여파로 영국이 큰 혼란을 겪고 있던 1790년대에 출간된 이 소설은 싸드의 유명한 언급대로 “전 유럽이 겪은 혁명적 충격의 불가피한 결과”(Miles 41-2, 재인용)로서 신교도 영국인인 루이스가 혁명에 대해 품었던 양가적 태도를 그대로 노출한다. 즉 폴슨(Ronald Paulson)은 루이스가 이 소설에서 프랑스혁명과 혁명의 반교권주의의 극적 반향을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폭동을 일으킨 군중을 궤에 굶주리고 통제를 벗어나며 잔인함에 있어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그렸다고 본다(536). 계급의 문제에 있어서 이 소설의 관점이 버크(Edmund Burke)의 관점에 비견될 만큼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왓킨즈(Daniel P. Watkins)는 이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소란한 1790년대의 시대정신의 중요한 차원을 포착하여 가장 취약한 측면과 두려움을 드러냈으며, 따라서 동시대의 다른 야심찬 작품들보다 더욱 명확한 당대의 그림을 제공하는데서 찾는다(115).

²⁰ 이와 관점을 달리하는 입장으로는 블레이크모어(Steven Blakemore)를 들 수 있다. 그는 암브로시오를 여성화된 인물로 분석하면서 이 소설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성역할 전도는 작가의 잠재적인 동성에 욕망을 드러낸다고보다 ‘남성성’(virility)을 강조하는 ‘남성적인’(virile) “18세기 영국의 신교 담론 안에서 여성성, 여성혐오, 구교라는 ‘타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준다”(522)고 주장한다.

여성 억압적이며 동시에 여성 해방적인, 나아가 지배이념으로부터 추방되어 주변화된 성 정체성을 재현하는 포르노그래피의 틀로 바라보아도 『수도사』는 여전히 양가적인 텍스트로 남는다. 아그네스, 그리고 안토니아를 대체해 로렌조의 아내가 되는 비르기니아(Virginia)와 같은 소위 정상의 범위에 속하는 대부분의 여성인물들은 위계적이며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대가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허락받는다. 반면 위계적으로 구축된 경계를 위반하는 ‘다른’ 성 정체성 소유자들은 마틸다처럼 아예 소설의 플롯을 탈주해 버리거나, 아니면 암브로시오의 경우처럼 소설의 지하에 다른 모습으로 치환된 채 매장되거나, 또는 과장된 자기파괴를 통해 그 해방의 에너지를 폭발시킨다.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여성의 혐오스러운 몸 못지않게 훼손되어 죽어가는 과정이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혐오스럽게 묘사된 암브로시오의 최후는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아마 루이스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암브로시오의 참혹한 파괴를 포르노그래피 방식으로 혐오스럽게 재현함으로써 당대 문화에서 용인되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도 표현되어야 하는 자신의 동성애적 경향을 스스로 처벌/용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0년에 루이스의 전기를 새롭게 쓴 맥도날드(D. L. Macdonald)는 폭도에 의한 수녀원장의 소름끼치는 살해가 당시 남색자(sodomite)를 공개처형하는 방식, 즉 동성애자를 형틀에 세우고 돌, 동물의 시체, 오물 등을 투척하는 집단 폭력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수녀원장의 죽음을 재현하는 방식에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문화 안에서 사는 동성애자의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다(Brewer 192, 재인용)고 말한다. 해거티(George E. Haggerty)는 19세기 초 남색(sodomy)이라는 성적 위배가 불러일으키는 반응을 싫음(distaste), 욕지기(sickening), 구역질(nausea)과 같은 반응을 포괄하는 혐오감(disgust)으로 요약한다. 이 어휘들은 음식에 대한 병(disease)적인 몸의 반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문화적 몸(cultural body)을 침해하는 성적 차이/위배에 대한 불편함(dis-ease)을 표현하기도 한다(35). 이성애를 근간으로 하는 양성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동성 집단 내에서 거주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수녀와 신부의 죽음을 이렇게 역겹고 포르노그래피적인 방식으로 재현함으로써, 루이스는 겉으로는 그들을/자신을 처벌하되, 억누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른’ 성 정체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이를 통해 프랑스 혁명 못지않게 18세기 후반의 중요한 화두였던 성의 담론화 과정의 한 밑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왓킨즈 식으로 표현하자면, 소란한 1790년대의 성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 가장 취약하고도 민감한 측면과 그에 대한 두려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 『수도사』의 문학사적 의의를 재발견할 수 있다.

주제어 | 포르노그래피, 외설성, 여성성, 『수도승』, 다른 성 정체성들, 남성적 여성, 동성애

인용문헌

- 김순원. “『조플로야』: 여성의 괴물성.” 『18세기 영문학』 8.2 (2011): 1-43.
- 이해원. “포르노그래피와 재현의 문제.” 『美學』 33 (2002): 243-76.
- 정희원. “고딕적 상상력과 영국소설—『파멜라』에서 『노생거 수도원』에 이르는 소설사의 이해.”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2.
- 하주영. “어떤 환원주의: 맥킨년의 그늘.” 『철학과 현실』 62 (2004): 130-40.
- Blakemore, Steven. “Matthew Lewis’s Black Mass: Sexual, Religious Inversion in *The Monk*. *Studies in the Novel* 30.4 (1998): 521-39.
- Brewer, William D. “Transgendering in Matthew Lewis’s *The Monk*.” *Gothic Studies* 6.2 (2006): 192-207.
- Caputi, Mary. *Voluptuous Yearnings: A Feminist Theory of the Obscene*. London: Rowman & Littlefield, 1994.
- Carse, Alisa L. “Pornography: An Uncivil Liberty?” *Hypatia* 10.1 (1995): 155-82.
- Cooper, L. Andrew. “Gothic Threats: The Role of Danger in the Critical Evaluation of *The Monk* and *The Mysterious Udolpho*.” *Gothic Studies* 8.2 (2006): 18-34.
- Diprose, Rosalyn. “Generosity: Between Love and Desire.” *Hypatia* 13.1 (1998): 1-20.
- Fallas, Jennifer A. “An Ironist Investigation of Expanding Feminist Dialogues about Pornography.” *Interdisciplinary Humanities* 29.2 (2012): 95-106.
- Gamer, Michael. “Genres for the Prosecution: Pornography and the Gothic.” *PMLA* 114 (Oct. 1999): 1043-54.
- Johnson, Claudia L. *Equivocal Beings: Politics, Gender, and Sentimentality in the 1790s*. Chicago: U of Chicago P, 1995.

- Haggerty, George E. "'Dung, Guts and Blood': Sodomy, Abjection and Gothic Fiction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Gothic Studies* 8.2 (2008): 35-51.
- Hunt, Lynn. "Many Bodies of Marie Antoinette: Political Pornography and the Problem of the Feminine in the French Revolution." *Eroticism and the Body Politic*. Ed. Lynn Hunt.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1. 108-30.
- _____. *The Invention of Pornography: Obscenity and the Origins of Modernity, 1500-1800*. New York: One, 1996.
- Kilgour, Maggie. *The Rise of the Gothic Novel*. New York: Routledge, 1995.
- Lewis, M. G. *The Monk*. Ed. Howard Anderson. Oxford: Oxford UP, 1995.
- Macdonald, D. L. "'A Dreadful Dreadful Dream': Transvaluation, Realization, and Literalization of *Clarissa* in *The Monk*." *Gothic Studies* 6.2 (2004): 157-71.
- MaGowan, Mary Kate. "On Pornography: MacKinnon, Speech Acts, and 'False' Construction." *Hypatia* 20.3 (2005): 22-49.
- Marcus, Steven. *The Other Victorians: A Study of Sexuality and Pornography in Mid-Nineteenth-Century England*. London: Transaction, 2009.
- Miles, Robert. "Ann Radcliffe and Matthew Lewis." *A Companion to the Gothic*. Ed. David Punter. Oxford: Blackwell, 2001. 41-57.
- Mulman, Lisa Naomi. "Sexuality on the Surface: Catholicism and the Erotic Object in Lewis's *The Monk*." *Bucknell Review* 42.1 (1998): 98-110.
- Napier, Elizabeth R. *The Failure of Gothic: Problems of Disjunction in an Eighteenth-century Literary Form*. Oxford: Clarendon, 1987.
- Paulson, Ronald. "Gothic Fiction and the French Revolution." *ELH* 48.3 (1981): 532-54.
- Sedgwick, Eve Kosofsky. *The Coherence of Gothic Conventions*. New York: Methuen, 1980.
- _____.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New York: Columbia UP, 1985.
- Spacks, Patricia Meyer. *Novel Beginnings: Experiments in Eighteenth-Century English Fiction*. New Haven: Yale UP, 2006.
- Tuite, Clara. "Cloistered Closets: Enlightenment Pornography, The Confessional State, Homosexual Persecution and *The Monk*." *Romanticism on the Net* 8. Nov. 1997. Web.
- Watkins, Daniel P. "Social Hierarchy in Matthew Lewis's *The Monk*." *Studies in the Novel* 18.2 (1986): 115-24.
- Watt, James. *Contesting the Gothic: Fiction, Genre and Cultural Conflict, 1764-1832*. Cambridge: Cambridge UP, 1999.

ABSTRACT**Double-edged Pornography****Soon-won Kim**

This essay aims at re-illuminating *The Monk* (1796) which has been notoriously criticised for its lewdness and obscenity within the frame of recent debates on pornography. One big branch of the debates is firmly built on the belief that misogynous pornography is in complicity with patriarchy in subordination and objectification of women through sexually explicit and servile representation of women. On the other hand, some critics maintain that pornography can be used as an effective way of expressing not only female sexuality but various 'different' sexual identities that have been marginalized in a patriarchal society.

Given the ambivalence for which *The Monk* is so famous, it is not unexpected that the text seems to accommodate both arguments. If one reads the text focusing on Antonia and other main characters who gain a happy conclusion at the price of accepting the dominant sexual ideology, *The Monk* becomes a women-hating and women-belittling pornographic text, where female bodies are simply either objects of male sexuality or a disgusting, corrupting and mangled mass. However, if one focuses on Matilda, who transgresses all fixed categories of sexual identity, gender identity, and even human/non-human identity, *The Monk* becomes a subversive, obscene, and pornographic text, where female desire for liberty can be fully gratified. Besides, *The Monk* as a pornographic text also contains the unspeakable crime of homo-eroticism safely repressed in the depth of the Ambrosio-Rosario story, from which it flees into a hyper-heterosexual relation of Ambrosio and Matilda before readers detect the latent homo-eroticism of Lewis himself.

Key Words | pornography, the obscene, the feminine, *The Monk*, different sexual identities, masculine woman, homo-eroticism

원고 접수 2012년 12월 31일 | 심사 완료 2013년 1월 23일 | 게재 확정 2013년 1월 24일